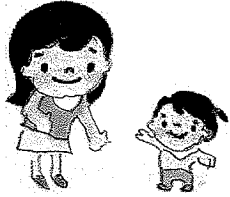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어느 화가의 이야기



어느 날 화가의 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새댁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보았는데, 그 아기의 한쪽 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사고로 그랬는지 그 이쁜 얼굴에 한쪽 눈이 훑측하게 감겨져있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화가가 우편함을 정리하고 있는데 계단위에서 새댁이 한손에는 아기를 안고, 한쪽 눈을 감고 짙룩거리며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화가는 마음속으로 '참 이상한 여자도 다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새댁이 한손에는 아기를, 한손에는 사진을 들고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진은 잘못된 한쪽 눈을 감출수가 없지요.

아기엄마는 자기 안방에 이쁜 아기 초상화를 달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잘못된 한쪽 눈도 이쁘게 그려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화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화가는 다른 그림과는 달리 아기의 초상화를 몇 날 몇 일을 정성껏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아기 눈의 눈동자를 손을 떨면서 그려 넣고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아기 엄마에게 가져다주니 그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며 화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저의 한쪽 눈을 아기에게 이식해주기로 했답니다. 그 생각만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부터 길을 갈 때나, 밥을 지을 때나, 빨래할 때나 한쪽 눈을 감고 살아가는 연습을 한답니다.”



◀그뻘 그랬저 ▶ “이 씨스터스” 를 기억하시나요?

“울릉울릉 울릉대는 가슴안고 연락선을 타고가면 울릉도라...” 차가운듯하면서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화음을 엮어 내던 여성트리오 ‘이 씨스터스’.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남성금지구역’ ‘별들에게 물어봐’ 등 많은 노래를 우리 기억속에 남겼습니다. 그중 ‘여군 미스리’ 는 군가 같은 분위기면서도 많이 불려진 노래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70이 된 할머니가 되었을테지만 특 쓰는 청량 음료수 같은 목소리는 여운되어 추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4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2월 3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귀 소

김 윤 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녁노을을 따라 긴 행렬을 이룬 새들을 보라
어김없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저 미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소의 섭리가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뛰어도 뛰어도 제자리 그대로인 줄 모르고
분주했던 시간들,
수천 길 절벽 위에 몰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얘야, 이제는 그만 돌아오렴,
따뜻한 그분의 음성.

알고도 피해 다닌 그 귀소의 길에
아버지 손짓을 따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내게 놓여진 여정은
그저 그의 품으로 돌아갈 길뿐,
과거의 시간이 나를 옥죄어 오더라도
돌아가서 내 응석을 들어주실 그분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말씀따라 행하기▶

내가 청년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나의 노년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인품따라 행하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y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57장	다 같이
기 도 Pray		최득수 안수집사
	세례식	
특 송		백수진 성도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4:8-11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3번째 시험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40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980년, 생애 첫 번째로 성전 건축할 때 결혼패물로 헌금하던 그때의 감격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갈보리 제단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성전건축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11,876 + 한화(₩)30,000 + USD 100	총액:\$278,291
--	--------------

◆12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차량	안내
3	최득수	장현중	본당:임혜자, 정희자
10	현석호	정덕수	현관:장현중, 정덕수
17	김교섭	최재학	
24	박일영	고성일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31	이광희	권용일	장유진

◆12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3	세례식 대강절시작 월초새벽기도회(1) 구역예배종강(8)
10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2)
24	성탄주일 성탄예배(25):유아세례 성탄축하의 밤(24)
31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31)

『교회생활』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토 오후 5시

1. 교우소식
 - *<별세> 신경화 집사 모친. 지난 31일(금) 별세. '오직 주님'으로 일생을 사시다가 소천하신 권사님, 이제 그 믿음을 맡아 품고 살아갑니다
 - *<이사> 김성국 목사 571-2474. 11/13 Harrison Rd. Ellerslie
2. 오늘부터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 *생일은 기뻐야 합니다. 주님 나심에 설레임이 있는 12월로 살아갑니다
 - *이번주 토요일(9일) 저녁 7시."Christmas in the Park". Domain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삼아 나와 즐기세요.
3. 오늘 세례식 갖습니다.
 - *유아세례자 신청바랍니다(유아세례:12월 25일. 신청:이태한 목사)
4. 성전건축을 위한 10여선교회 김밥판매
5. 구역예배 종강 <8일(금)>
 - *금년도를 함께 지낸 구역식구들과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 금주 춘계 대심방
 - *<10구역> 5일(화) 10시 <11구역> 7일(목) 11시 <10구역> 저녁 6시
7. 성탄축하의 밤을 위한 선교회별 준비해 주십시오. 성탄절에는 함께 예수님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체면, 명예 훌훌벗고 순수함의 즐거움을 누리보겠습니다.
8.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 *요즘 수요예배 참석이 부진합니다. 특히 항존직분자들에게선 먼저 예배부터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9. 시온합창단 공연 <8일(금) 저녁 7시. Auckland Girls Grammar Schol Hall>
 - *우리교우 단원:권오걸, 김삼영, 최득수

◀착한 시인들▶ 속아내지 마소서 박노해

당신이 짐 지워준 삶의 무게를
함부로 벗어버리지 않겠사오니
깊이 들여박힌 이 상처와 치욕도
함부로 덮어버리지 않겠사오니
오, 제 안에 주렁주렁 매달린
이 욕망과 애착의 열매들도
나날이 간소하게 속아내겠사오니
정녕 절 속아 내버리지 마소서.
살리고 떨구는 건 당신의 뜻이겠지만
살점 예이는 겨울살도
기쁘게 살아내겠사오니
속아내지 마소서

절벽 위를 나는 새들을 보며 부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낙하와 상승을 조절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들처럼 나도 인생을 아름다운 곡선으로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도 좋아하실 부드러운 곡선.....